

金沢箔

歴史

文禄2年(1593年)加賀藩初代藩主前田利家が陣中より国元へ金箔・銀箔の製造を命じていることから、それ以前に既に製造されていたと推測される。その後、加賀藩の美術工芸振興策により、箔の製造が奨励された。

元禄9年(1696年)江戸幕府は江戸・京都以外で箔の製造を禁止するが、藩の庇護の下、密かに製造が続けられ、元治元年(1864年)藩の御用箔の製造が許可されると、金沢箔は質・量ともに大きく発展した。



藩政の崩壊により、箔の統制がなくなり、その保護下にあった江戸箔に代わって、金沢箔が品質の良さで市場を独占するようになり、現在では、全国生産の99%以上を占めている。

特色

金箔づくりには、純金に微量の銀、銅を加えた合金が使われる。この合金のもつ輝きを失わせることなく1万分の1ミリ程度の厚さ(10円硬貨大のものを量4、5枚の広さ)まで均一に広げる。このような職人の技術と製箔に適した気候、水質等にめぐまれたため、金沢箔の製造が他の追随を許さないものとなった。箔打ち機の機械化をのぞけば、江戸時代の伝統技術を残している。製箔に欠かせない箔打紙は、粘土を混ぜた手漉和紙を灰汁、柿渋、卵に浸し、1ヶ月かけて仕込むもので、紙質の良否が製品に大きく左右する。

箔は、工芸材料として仏壇・仏具、水引や西陣織など金銀糸、漆器の沈金や蒔絵、陶磁器の絵付けに使われるほか、屏風、襖紙、製薬材料、化粧品等多方面にわたって活用されている。



가나자와금박

역사와 특색

16 세기 말에, 가가번이 미술공예 진흥책을 펴게 됨에 따라 금박제조가 장려됐다. 에도막부는 지정지역 이외의 금박제조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가가번주의 비호 하에 가나자와에서는 금속박 제조가 계속되고 있었다. 1864년 금박 제조금지가 해제된 후 가나자와 금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크게 발전했다.

금박은 동전크기의 금 합금을 두드려, 두께 0.1 미크론, 7㎡ 의 크기로 얇게 넓힌다. 이같은 전통기술은 여러 대에 걸쳐 계승돼 오고 있다.

가나자와에서 제조되는 금박은 일본전국의 금박 생산량의 99 %를 차지하고 있다. 금박은 불단과 칠기, 도자기 등 공예품 장식에 사용되며,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 情報 정보

주요 생산지(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주요 제품명(주요 제품명)	金箔, 銀箔, 洋箔, 金箔工芸(금박, 은박, 양박, 금박공예)
주요 생산자(주요 생산자)	石川県箔商工業協同組合(이시카와현 박상공업 협동조합) 〒920-3122 金沢市福久町口172(가나자와시 후쿠히사마치 로 172) TEL (076)257-5572 FAX (076)257-5583